친환경 장례 '에코 다잉' 확산

묘지 포화·산림 훼손 문제 해결
수목장·해양장 등 새 문화 '뿌리'

지난달 25일 오후 '목포의 눈물'의 가수 고(故) 이난영(1916~1965)이 목포 삼학도에 있는 20년생 백일홍 나무 밑에 묻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장성 출신으로 '20세기 최고 임업가'라는 춘원 임종국 선생의 수목장(樹木葬)이 장성군 서삼면 축령산 조림지에서 거행됐다.

뼛가루를 자연에 뿌려 장례를 치르는 '에코 다잉'(eco-dying)이 새로운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산림훼손 등 환경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묘문화**=광주시는 내년 말까지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내 4천212평에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추모의 동산'을 조성한다. 화장률이 2000년 20.9%에서 2005년 41.1%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8년 말이면 현재의 납골당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이미 다양한 '에코 다잉'이 선보이고 있다. 경북 영천의 은해사는 200만~300만원에 경내 소나무를 분양, 수목장을 하도록 하고 있고, 충남 서대산 일불사도 측백나무 숲에 산골(散骨)을 허용한다.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海洋葬)은 지난 1999년부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시작, 지난해 943건이 시행됐다. 정원에 뼛가루를 뿌리는 '정원장'(庭園葬) 역시 서울시가 2003년부터 경기도 파주 '추모의 숲'에서 운영 중인데 지난해 1천768건이 이용돼 2003년 61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에코 다잉(eco-dying)=시신을 화장한 뒤 남은 뼛가루를 산·바다 등에 뿌려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친환경적인 장례. 수목장·해양장·정원장이 대표적이다.

◇**관련법 마련 시급**=광주·전남 장례업계에도 최근 조상묘를 돌보기 어려운 출향인사들의 '에코 다잉'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임금용(57) 광주 온누리장묘연구회 회장은 "출향인들이 매주 2~3차례 조상묘를 다시 파내 유골을 화장한 후 수목장을 하거나 강·바다 등에 뿌리는 장례법을 문의해 오고 있다"며 " 관련 법규가 없는데다, 이 지역에는 사설 수목장이 없어 권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묘지나 화장장, 납골시설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로는 '에코 다잉'을 뿌리내리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국공유림을 이용한 수목장을 계획했다가 관련 법률이 없어 보류하고 있고, 광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법률개정 이후 사업추진 일정을 잡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용학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수목장림 조성·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과 함께 골분 처리 기준, 추모목, 고인에 대한 표식 방법 등과 추모목의 분양가, 분양기간, 관리비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참 〈6798〉 김종두

의료용 찜질기 누전 화재
일가족 3명 중화상

광주 소촌동 아파트

의료용 찜질기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일가족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5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L아파트 한모(68)씨의 집 거실 침대에 놓여 있던 의료용 찜질기에서 불이 나 냉장고·TV 등 가전제품과 거실 5평을 태워 14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침대에서 잠을 자던 한씨가 얼굴과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한씨의 부인 김모(53)씨도 불을 끄다 데여 서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한씨의 어머니 강모(88)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씨는 "의료용 찜질기가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고, 벽에서도 한꺼번에 불이 일었다"고 말했다.

의료용 찜질기는 어머니 강씨가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한씨를 위해 지난 2004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한씨 등이 사용법을 잘 몰라 찜질기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바람에 과열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찜질기가 전기과부하를 일으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의뢰했다.

/임주형·이승배 기자 jhlim@kwangju.co.kr

■ 찜질기 안전도는?

최고온도 대부분 기준 초과
품질인증 마크 꼭 확인해야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 찜질기는 맥반석·옥돌·모래·물 등을 이용한 10여 종으로, 보통 60~80도의 열을 낸다. 전선을 직접 연결하거나 충전을 해 사용할 수 있는데, 5~6분 충전으로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관절염·생리통·치질·변비·타박상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1시간 이상 코드를 꼽고 사용할 경우 전기 과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10개 회사 14개 제품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의 최고 온도가 안전 기준(최고 85도)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찜질기는 허가번호·사용전압·소비전력과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는 필수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있는 불량제품도 많이 유통되고 있다. 찜질기를 구입할 때는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의 품질인증(Q 마크)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농기계 합동순회수리

농협전남지역본부는 5일 농기계기술요원 등 100여명과 이동순회차량 10대로 '도단위 농기계 합동순회수리단'을 구성, 장성군 황룡면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장성 산림조합 간부들
사업비 10억여원 횡령

검찰 13명 적발·수사확대

숲을 가꾸고 키워야 할 산림조합 간부들이 육림(育林)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해 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림조합 임직원 무더기 적발**=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 주임검사 박찬호)는 5일 육림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1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접대비와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성군 산림조합 조합장 김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합 상무 김모(52)씨 등 간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모(45)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3년여 동안 장성군이 발주한 10여건의 '무육(撫育) 간벌사업'(고사목·경쟁목 등의 제거작업)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50억여원으로 과다 책정, 차액 10억4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직원들끼리 정기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나눠 갖거나 접대비·기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횡령 수법도 '치밀'**=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과대계상된 공사대금을 영림단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인출해 실제 공사비만 영림단에 지급해 온 수법을 써왔다. 조합 간부들은 이 과정에서 영림단의 통장과 도장을 자신들이 직접 보관하고 공사비를 수시로 빼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조성할 수표에 대해서는 영림단 계좌에 입금 및 인출할 때 수표 번호를 누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수사 확대**=검찰은 다른 조합도 비슷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김종호 특수부장은 "산림조합 간부들의 횡령은 결과적으로 육림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국고 손실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64억원을 들여 2천859ha에 754만7천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으며, 올해는 2천639ha에 612만6천 그루(사업비 114억원)를 심을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얼빠진 도둑, 성공(?) 자축하다 '덜미'

쌍나팔

○…금반지 등을 훔친 뒤 범행 성공을 자축(?), 술에 만취한 40대 절도범이 훔친 반지 등을 길가에 흘리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완도경찰은 5일 빈집에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시가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장모(47·북제주군 한림읍)씨를 절도혐의로 구속.

○…절도전과 7범인 장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김모(여·60)씨 집에서 금품을 훔친 뒤 완도읍으로 나와 술을 마시고 취해 배회하던 중 훔친 금반지 2개를 흘린 것.

○…장씨가 흘린 반지는 때마침 도보순찰 중이던 경찰이 주웠는데, 술 취한 장씨는 뻔뻔하게 "내 반지니 내놓으라"고 우기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전과조회 등 추적 끝에 결국 범행이 들통.

○…장씨는 경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금반지를 주운 사람이 경찰인줄 모르고 내 것이라고 우겼다"며 "그놈의 술이 원수"라고 한탄.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